

[신년부흥집회] 마른 뼈의 환상

[본문 : 겔 37 : 1 ~ 14]

하용조 목사 / 2000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을 할 때는 지치고,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적인 평가를 하지 않게 되고, 자유가 생기며,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는 사역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성기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며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은 일하게 됩니다. 올해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쁨부으심, 성령의 함께 하심의 복과 감격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소망과 약속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개하셨듯이 우리를 징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개와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징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느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묘지로 데려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게 끌려 북한,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과 마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자체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고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사역자들이 늘 사모해

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피곤하고 힘들어지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이 원치않는 곳,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간 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이 세상도 끔찍한 곳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뼈가 널부러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북한,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뼈는 굉장히 많고 그 뼈들은 말라비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그 뼈들이 바로 자기의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절망하고 고망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훼파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이방땅으로 끌려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절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대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혼자서 선교사로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살아날까? 공산주의, 이슬람이 무너지겠는가?’라는 식의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차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불가능에 직면하여 인간적인 헌신과 사역에 절망해 봐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으로 계산해 보면 말도 안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
호와의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것은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도하고, 사역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

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찌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것은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갈수록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뼈들더러 살아나라고 말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기가 들어간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마른 뼈에게 임하신다면 그것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들이 살아나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힘줄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살을 입힙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뼈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뼈들에게는 이때까지도 생기가 없습니다. 이 뼈는 환경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시작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일 뿐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사방에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러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상식이 통하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나 아니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자 마자 뼈가 살아 움직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년 동안 민족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6백만이 학살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고, 전세계에 흩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부활의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민족과 교회가 부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소망이 없고 절망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인간은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

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캠퍼스와 국가와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질, 나이, 능력, 상황 모두 계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비전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방법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민족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가의 환상을 가지십시오.

*** 출처 - 은누리신문**